

신앙고백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1장 다함께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 평생의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3.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후렴]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길 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 말은이

(기도순서는 자녀, 또는 가정의 연소자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성전을 향해 가는 발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막바지 이사와 여러 가지 해야할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담임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현장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영육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설교문은 인도자가 읽거나,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 온전한 인생을 위하여 말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구도자의 태도를 유지하다가도 제자로서 각오가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현실과 타협하는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 진실과 정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권위의 출처를 오는 본문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묻는 말로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에만 집착할 뿐 진리에 대해 의지와 정직함은 상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꺾이기만 남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진실' 과 '정직' 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2. 실천하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답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위선을 비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말뿐인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성도)을 기만가 허위에 빠뜨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입에 발린 말이 아닌 실천하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제인 애덤스는 척추에 병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을 여행하다가 런던의 빈민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 다. 자신이 살아왔던 풍족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빈민들을 위한 탁아소,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 미국의 200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71세가 되던 해, 그녀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 누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나의 만족을 위한 염려일 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과 땀이 존경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3. 참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과 권력 의지할 것이 있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늘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일까요?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모시기위해 열려 있었습니 다. 왜냐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온전한 인생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위선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인생입니다. 왜냐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 이 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봉 헌 다 함 계
 봉 헌 기 도 가 족 중
 (헌금은 추후 주일예배 참석 시 또는 교회별 안내에 따라 봉헌하시면 됩니다.)
 찬 송 400장 다 함 계

1.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2.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3. 좌악 갈에 빠진 이 몸 감감한데 해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후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 기 도 문 다 함 계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1인 또는 여럿이 드리는

가정 예배문

 한마음교회